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수 박순철

# 영암군, 新 4대핵심전략 산업 최종 용역보고회

### 4대 신성장산업 비전과 추진전략 포함 중장기계획 수립



영암군에서는 지난 26일, 新 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신성장산업 비전과 추진 전략을 포함한 중장기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군에서는 민선6기 눈부신 성과를 거둔 4대핵심산업을 한층 발전시켜 新산업으로 중단없이 추진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으며, 이번 최종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중요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성장산업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4대핵심산업으로 ▲농업을 살리는 생명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미래 생명산업인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국립종자원 비 정선시설을 기반으로 고품질쌀 생산과 기후와 토양에 맞는 품종개발, 음변별 특화작목 육성, 스마트팜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문화관광·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트러스트가오센터 건립, 영암읍성 오색스카이웨이·도갑지

구 문화공원 조성, 씨름 및 체육인프라를 통해 스포츠 마케팅을 펼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미래 4차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드론·경비행기 항공산업과 대불산단 산업 다각화와 미래먹거리·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자동차부품 산업도 집중 육성하게 된다.

新 4대핵심발전 전략산업은 4개 분야 39개 세부사업으로 민선7기 동안 2,270여원을 투자하게 되며, ▲생명산업 16개사업, 1,122억원 ▲문화관광·스포츠산업 20개사업, 951억원 ▲드론·경비행기 항공산업 2개사업 90억원 ▲자동차부품산업 10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황인섭 부군수는 "4대핵심발전 전략산업은 복지와 성장이라는 두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민선6기에 이어 민선7기 핵심과제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 넣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 장흥군, 어린이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 문화 다양성 인정·사회적 갈등 낮추는 성과 거둬



장흥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혜영)는 올해 지역

한 결혼이주여성 4명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본국 문화소개, 각 나라별 전통의상 입어보기, 나라별 전통놀이 체험 등 유·아동기에 친숙하고 흥미가 높은 내용위주의 수업으로 진행됐다.

다문화 이해교육은 9~12월까지 지역 5개 어린이집 120회기,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8회기 과정이 열렸다.

박혜영 센터장은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은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프로그램을"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을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는 다문화 관련 교육을 이수

# 강진군, 국도 2호선 4차선 가시나무길 정비완료

### 가지치기로 경관 확보 깨끗한 강진 이미지 제고

강진군은 가로수 전정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목의 생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2월 초부터 시작한 국도 2호선 총 24km 구간 가시나무 약 4000여주에 대해 가지치기 작업을 완료했다.

이번에 가지치기를 실시한 국도 2호선은 서쪽으로는 영암, 동쪽으로는 장흥으로 이어지는 강진의 주요 거점도로 중 하나로 차량 이동이 많고 강진의 주요 홍보공간이

많이 부착되어 있는데 국도 2호선 내 식재되어있는 가로수로 인해 흉을 보간편이 보이지 않는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강진군은 이번 가로수 가지치기를 실시하여 민원해결은 물론 가로수 생육환경을 개선했다.

이번 가로수 가지치기는 주로 나뭇가지와 잎이 도로 안내판 및 교통 표지판이나 신호등, 가로등을 가리거나 도로변으로 뺀 가지로

인한 차량 파손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 낙엽으로 인한 배수 시설 문제 등이 제기 되는 곳에 우선적으로 실시했다.

또, 옷가지거나 무성하게 자란 가지를 솎아 남으로써 나뭇잎 사이 통풍을 원활하게 해 병충해를 예방하고 뿌리와 잎의 비율을 적절하게 조절해 나무가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생육환경 제공에 목적이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 담양군, 2018년 사회조사 결과 공표

### 군민 51.5% "지역민으로서 자부심 느낀다"

담양군이 군민의 생활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 정책적 요구사항 등을 파악한 2018년 담양군 사회조사 결과 및 사회지표를 26일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사회지표는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0일까지 관내 표본가구 828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와 가족, 소득과 소비, 노동과 경제 등 13개 지표 60개 항목을 조사원이 직접 설문조사해 응답한 결과이다.

사회조사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가 51.5%로 나타났으며 '삶에 대한 만족도'(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6.9 점으로 전년 대비 6.5점) 상승했다.

2017년 주민등록인구는 47,285명으로 2013년 대비 80명이 감소하였으며 세대수는 22,710세대로 2013년 대비 1,194세대 증가하였다. 인구 구성비는 60대가 17.8%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만 원 이상이 44.7%로 주된 소득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만 원 미만이 71%였으며 부담되는 생활비로는 식료품비가 31.5%로 가장 높았다.

직업선택요인은 안정성(36.2%), 수입(36%), 적성·흥미(12.6%) 순이었고 일과 가정에 대해서는 일에 우선(51.8%), 일과 가정에 비슷하게(36.2%), 가정에 우선(10.7%)순이었다.

또한 군민은 지역문화 축제 중 대나무축제에 참여도(60.4%)와 만족도(41.6%)가 가장 높았으며 메타세쿼이아가로수축제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군민은 지역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주민의 주도와 참여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축제와 지역명소를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가 그 다음을 차지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회조사 결과는 군민의 삶이 바뀌는 행복도시 담양을 만들기 위한 주요 군정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 완도군, 도로명 주소

### 활성화 장관표창 수상

완도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9년 주소정책 워크숍에서 도로명 주소 업무평가 부문의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해마다 도로명 주소 활성화 시책을 기여한 우수 기업, 국민,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에게 유공 분야별로 시상하고 있다.

도로명 주소는 지난 2014년부터 법제화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도 도로명 주소가 우리 집 주소라는 인식이 정착되지 않았다.

이에 군에서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홍보를 추진하여 도로명 주소 사용률을 향상 시키는 물론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도로명 주소 사용에 따른 군민들의 생활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불편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 회수군,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제안 3개' 선정

회수군은 청년정책위원회를 열어 '회수군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제안을 심사한 결과, 시상 제안 3건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10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민들과 청년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회수군정에 관심이 있는 군민 특히 청년들의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생활·복지 ▲청년 문화·예술·교육 ▲기타 청년 전반에 관한 사항 총 4개 분야로 진행했다.

이 공모에는 총 27개 제안이 접수되어, 회수군과 회수군 청년정책위원회 심사위원단이 '실시 가능

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계속성, 적용범위' 등 5개의 심사항목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총 3개 제안을 선정했다.

선정된 3개 제안은 타 시·군 중 복 시상여부 등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채택하고 시상할 예정이다.

회수=박순철 기자

# 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 하반기 직무능력강화교육

무안군은 군민들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1일 충남 안전체험관에서 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 20여 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직무능력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방재단원들은 고층빌딩에서

화재발생 시 예방법 및 대처요령, 비상 시설물 이용방법 및 대피요령, 방독면 착용요령, 교통사고 체험 등 각종 재난체험을 실시했다. 또한, 실내 화재 상황 대처 능력을 키우고 화재 시 초기 진화를 위한 소화기 사용법 등 재난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

양한 프로그램을 몸소 체험하였다.

군 관계자는 "매년 직무능력강화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 및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무안=이기성 기자

# 친환경 천연 창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밟강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를 위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